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018. Vol. 37, No. 1, 66-79

Original Article
© 2018 Korean Clinical Psychology Association
https://doi.org/10.15842/kjcp.2018.37.1.006
eISSN 2733-4538

The Relationship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Depression: Dual Mediating Effects of Negative Interpretation Bias and Negative Memory Bias

Jeong Hyeon Park Jong-Sun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Korea

Rejection sensitivity and negative cognitive bias are risk factors for depression. Rejection sensitivity is a concept that explains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f and reactions to rejection. Individuals with high rejection sensitivity anxiously expect, readily perceive, and overreact to rejection. Cognitive bias is a pattern of deviation that occurs when people interpret and remember given information or situations. Depressed people have negative cognitive bias.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dual mediating effect of negative interpretation bias and negative memory bia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depression among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A total of 159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completed the 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and Similarity Rating Task using E-prime Software. The research model was constructed based on previous research in this field. To compare the research model and the two alternative model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conducted. The complete dual mediation model attained the best fit for present study. The finding suggests that high rejection sensitivity may contribute to depression through the increase of negative interpretation bias and negative memory bias. Our findings support the combined cognitive bias hypothesis proposed by Hirsch and colleagu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depression. Finally, the therapeutic implications and limitation of the study were discussed.

Keywords: depression, rejection sensitivity, cognitive bias, interpretation bias, memory bias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삶을 영위해 나간다. 친밀한 대인관계를 맺고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 타인에게 소속과 애정을 원하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동기라고 할 수 있다(Bowlby, 1969; Maslow, 1968 as cited in Baumeister & Leary, 1995). 하지만 타인이 자신을 거부할까봐 끊임없이 불안해하고 수용받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대인관계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성향은 개인의 정서 및 대인관계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기존에 제시되었던 연구들은 대인관계 문제와 인지편향을 우울증의 주요 위험요소로 보고 있으며(Disner, Beevers, Haigh, & Beck, 2011; Joiner, Coyne, & Blalock, 1999), 이러한 대인관계 문제와 인지편향의 교차점에 위치한 중요한 성격 현상인 거부민감성(rejection sensitivity)에 주목해 왔다(Normansell & Wisco, 2016). 거부민감성은 자기에게 중요하다고 지각되는 타인으로부터 거부당할 것이라는 기대를 어린 시절부터 오랜 시간 마음속에 담아두어 온 개인이, 거부를 항상적으로 지각하고 이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하는 인지-정서적 처리 경향성을 의미한다(Ayduk, Downey, & Kim, 2001; Downey & Feldman, 1996). 거부민감성이 높은 개인, 다시 말해서 타인으로부터 거부당할 것이라는 기대를 일찍이 습득한 개인은 거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계하고 모호한 상황도 거부 단서로 해석하며 거부로 인하여 필요 이상으로 좌절하거나, 과도하고 격렬한 반응을 나타낼

†Correspondence to Jong-Sun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1 Kangwondaehak-gil, Chuncheon, Korea; E-mail: jongsunlee@kangwon.ac.kr

Received Sep 26, 2017; Revised Feb 02, 2018; Accepted Feb 05, 2018

This study was adapted from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and was presented orally at the 2017 Spring Conference of the Korea Clinical Psychology Association.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Republic of Korea and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6S1A5A8019696).

수 있다. Levy, Ayduk과 Downey(2001)는 이러한 총체적 과정을 통틀어 '거부민감성 모델'이라고 정의한다.

선행연구들은 높은 거부민감성과 우울증상 간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보고해 왔다. 거부민감성이 높은 여대생과 우울취약성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고한 Ayduk 등(2001)의 연구, 아동기에 성적 학대를 경험한 여대생을 대상으로 거부민감성과 우울증상의 관계를 시사한 Luterek, Harb, Heimberg와 Marx(2004)의 연구,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거부민감성과 우울증 관련성을 제시한 Mellin(2008)의 연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거부민감성이 다른 변인들을 매개로 우울증 발현 및 악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들도 있다. 거부민감성이 부적응적 이성관계를 통하여 우울증에 영향을 미친다는 Bergevin(2003)의 연구, 거부민감성이 자기침묵을 부분적으로 매개하여 우울증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Harper, Dickson, & Welsh, 2006), 높은 거부민감성을 가진 개인들이 문제를 위협요소라 지각하고 회피하려는 문제해결 방략을 보이기 때문에 우울증상으로 이어짐을 설명한 매개분석 연구(Kraines & Wells, 2017)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거부민감성과 우울증상 간 유의한 관련성을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들도 있지만, 대학생을 대상으로 거부민감성과 우울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에서는, 회귀분석을 통해 거부민감성이 우울수준을 설명하는 변량이 11%로 비교적 크지 않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는 거부민감성이 우울과 직접 관련이 된다기보다는 거부민감성과 우울의 관계를 설명하는 또 다른 경로가 있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Mellin, 2008).

Ayduk과 연구자 등(2001)이 실시한 종단적 연구에서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거부민감성과 우울증상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높은 거부민감성을 가진 여대생들은 낮은 거부민감성을 가진 여대생들에 비해 파트너가 이별을 통보해온 경우 더 심한 우울증상을 보였다. 반면 자신이 먼저 이별을 통보한 경우 혹은 학업 성취 실패에 대해서는 두 집단 간 우울증상의 차이가 없었다. 또한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우울증상 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의 취약성을 알아본 연구에서는 중기 청소년기의 거부민감성이 중기 청소년기의 우울증상 및 후기 청소년기의 우울증상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Chango, Mc.Elhaney, Allen, Schad, & Marston, 2012). 거부민감성과 우울증상 간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사건 경험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종단적 연구에서는, T1의 거부민감성이 T2의 우울증상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T1의 거부민감성이 스트레스 사건을 매개로 T2의 우울증으로 향하는 간접경로가 유의하였다(Liu, Kraines, Massing-Schaffer, & Alloy, 2014). 또한 거부민감성과 우울증상 간의 관계에서 부정적 해석편향의 매개효과를 알아본 연구에서, T2의 부정적 해석편향이 T1의 거부민감성과 T3의 우울증상 관계를 부분 매개함을 밝혔다(Normansell & Wisco, 2016). 전술한 종단연구 결과들은 거부민감성이 우울증상을 예측할 수 있는 주요한 변인임을 나타낸다.

최근 우울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중 인지적 접근에서 강조되고 있는 요인으로 인지편향을 들 수 있다. 우울증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할 때 가정환경이나 사회적 관계에서 학습한 부정적 인지도식을 활성화시키게 되고, 활성화된 인지도식은 부정적인 정보처리에 영향을 주게 되며, 이는 우울감을 유발할 수 있다. 부정적이고 고통스러운 경험 그 자체가 우울증을 유발하는 원인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경험이 자신, 세상, 미래에 대한 역기능적 사고를 하도록 만들 수 있고 이 때문에 우울한 개인은 부정적 정보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부정적 정보를 더 잘 기억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인지편향은 단순히 정서 장애에서 나타나는 부차적인 현상으로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발생, 유지 및 재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Beck, Rush, Shaw, & Emery, 1979 as cited in Sander, 2001; Beck, 2008; Disner et al., 2011; Hindash & Amir, 2012).

이러한 인지처리 과정에 있어서의 편향은 주의편향, 해석편향, 기억편향으로 구별된다(Joormann & Quinn, 2014). 주의편향은 정보처리 과정 중 주의에 영향을 미친다. 해석편향은 애매모호한 자극이나 정서가가 있는 시나리오를 어떤 방향으로 해석하는지에 영향을 미친다. 마지막으로 기억편향은 여러 정보들 중에서 차후 어떠한 정보가 저장되고 어떻게 기억될 것인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Joormann & Quinn, 2014; Leung, Lee, Yip, Li, & Wong, 2009; MacLeod, Mathews, & Tata, 1986; Watkins, Vache, Verney, & Mathews, 1996).

이 중 부정적 해석편향 과정은 다수의 연구를 통해 우울증과 관련성이 있다고 입증되었다(Lawson, MacLeod, & Hammond, 2002; Rude, Valdez, Odom, & Ebrahimi, 2003). 부정적 해석편향이란 애매모호한 상황이나 정보에 대하여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 해석을 하는 대신 부정적 해석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Joormann & Quinn, 2014). 정서-인지학자들은 인지와 정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애매모호한 상황에 대한 평가 또는 해석이 차후 정서적 경험을 하게 될 것인지 여부 및 어떤 종류의 정서를 경험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한다. 즉,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하는지가 정서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Ellsworth & Scherer, 2003; Siemer, Mauss, & Gross, 2007). 해석편향에 관한 초기연구를 살펴보면, 임상 우울환자와 우울하지 않은 피험자에게 애매모호한 문장을 제시한 후 어떠한 해석이 자신과 유사한지를 평정하도록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임상우울군이 우울하지 않은 피험자에 비해 부정적 해석에 대하여 자신

과 더 유사하다고 평정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Berna, Lang, Goodwin, & Holmes, 2011). Rude, Wenzlaff, Gibbs, Vane과 Whitney(2002)는 뒤섞인 단어 6개 중 5개를 선택하여 문장을 만들어내는 문장구성과제(Scrambled Sentence Task, SST)에서 부정적 해석 점수가 4–6주 후 우울증상을 예측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즉 부정적 해석편향을 하는 경향이 높은 개인은 일상생활에서 긍정적 내용보다는 부정적 내용에 더욱 편향되어 정보를 처리할 가능성이 높게 되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편향된 인지는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Hertel, Mor, Ferrari, Hunt, & Agrawal, 2014).

부정적 기억편향 역시 우울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Everaert, Koster, & Derakshan, 2012; Johnson, Joormann, & Gotlib, 2007; Joormann, Siemer, & Gotlib, 2007). 무의식적인 암묵기억(전주의적 단계) 처리단계에서 정서적 취약성이 드러나는 불안과 달리, 우울은 의식적인 외현기억(세분화 단계)에서 정서적 취약성이 드러나는 경향이 있다(Williams, Watts, MacLeod, & Mathews, 1988 as cited in Jang & Do, 2014),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우울을 겪는 사람들이 우울하지 않은 건강한 사람들에 비해 과일반화된 기억 및 부정적인 내용의 기억을 더 보고하는 편향이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Williams et al., 2007). Romero, Sanchez와 Vazquez(2014)의 연구에서도 우울 관해상태에 있는 집단이 건강한 통제집단에 비해 자기-참조 우연 회상 과제(self-referent incidental recall task)에서 부정적 자기-참조적 정보(self-referent material)를 더욱 많이 보고하였다.

최근에는 이러한 해석편향 및 기억편향이 단독으로 기능하기보다는 서로 상호작용하여 우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Disner et al., 2011; Hirsch, Clark, & Mathews, 2006), 각 인지편향(해석, 주의, 기억)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고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Everaert et al., 2012; Everaert, Tierens, Uzieblo, & Koster, 2013; Hertel & Brozovich, 2010). 가령 한 연구에서는 해석편향이 기억편향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해석편향 훈련을 시킨 후 훈련된 해석편향과 일치되는 기억편향이 나타나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긍정적 해석훈련을 받은 집단에서는 긍정적 기억편향이, 그리고 부정적 해석훈련을 받은 집단에서는 부정적 기억편향이 우세하게 나타났다(Tran, Hertel, & Joormann, 2011). 이를 통해 해석편향이 기억편향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임상 우울환자들의 스트레스에 대한 생리적 반응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Joormann, Waugh, & Gotlib, 2015).

한편 거부민감성 모델과 인지편향 간의 관련성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두 변인을 설명하는 이론적 배경에는 차이가 있다. 즉 거부민감성은 대인관계 상황에 국한되어 발현될 수 있는 특질변인으로, 애착이론을 토대로 하여 발전된 개념이다(Lee, Kim, & Lee, 2014). 그리고 해석편향은 인지이론에서 설명하는 정보처리 모델에 기반된 변인으로 고려되어 왔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두 변인의 관계를 추측해보면, 거부민감성이 높은 개인은 우울을 유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부정적 인지편향을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예컨대 어린 시절 주 양육자로부터 거부를 당하며 성장하고, 이후 대인관계 상황에서도 이렇다 할 안정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들은 불확실한 단서조차 거부로 인식하여 부정적 해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하는 연구로 Normansell과 Wisco(2016)의 연구를 들 수 있다. Normansell과 Wisco(2016)는 거부민감성이 해석편향을 매개로 우울증상에 영향을 준다는 모형을 설정하였다. 결과, 거부민감성이 해석편향을 매개로 우울증상에 영향을 주는 경로가 모두 유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인지편향이 거부민감성과 우울증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인지적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해석편향이 거부민감성의 예측 변인으로 설정된 모형을 추가 분석했을 때는 해석편향이 거부민감성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험 연구결과와 두 변인의 이론적 배경을 고려하여, 거부민감성은 해석편향과 서로 다른 개념이며 거부민감성이 해석편향에 선행하는 변인일 수 있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Normannsell과 Wisco(2016)의 연구는 거부민감성과 우울증상 관계를 매개하는 요인으로 부정적 해석편향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거부민감성이 기억편향에까지 영향을 미쳐 우울로 향한다는 가설을 검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선행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인지처리과정에서 해석편향과 기억편향은 단독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있다(Everaert et al., 2012; Hertel & Brozovich, 2010). 따라서 거부민감성과 우울증을 매개하는 인지적 처리과정을 단순히 해석편향으로만 국한시키지 않는다면, 결론적으로 부모와의 애착관계를 비롯한 대인관계에서 높은 거부민감성을 체득한 개인은 애매모호한 사회적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Normansell & Wisco, 2016), 이러한 부정적 해석편향은 부정적 기억으로 저장되어 최종적으로 우울감이 유발되고 강화된다고 가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거부민감성, 부정적 해석편향, 부정적 기억편향 및 우울증상 간의 관계를 하나의 연구모형과 두 개의 대안모형으로 설정하여 비교함으로써 구조방정식모형 검증을 통해 변인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가장 적합한 모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각각의 인지편향이 개별적으로 작동하여 우울에 영향

https://doi.org/10.15842/kjcp.2018.37.1.006

을 주기도 하지만, 각 인지편향의 상호작용 또는 두 가지 이상의 인지편향이 같이 작용하여 우울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Disner 등(2011)의 모델에서 제안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예비 연구로서 거부민감성이 해석편향과 기억편향의 순차적인 이중매개를 통해 우울증상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거부민감성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인지편향 중 특히 우울증상과 관련이 있다고 제안된 해석편향과 기억편향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행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보면, 거부민감성이 높은 개인들은 우울증상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애매모호한 혹은 중립적인 정서가를 가진 사회적 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부정적 해석편향을 매개로 우울증상에 영향을 줄 것이다. 한편, 특정 자극이나 특정 상황에 대한 부정적 해석편향은 이 후 특정 자극이나 상황에 대한 회상을 하도록 하였을 때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 정서가를 가진 기억보다는 부정적 정서가를 가진 내용을 더욱 많이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으며, 부정적 해석편향에서 부정적 기억편향으로 이어진 이중매개효과는 우울증상을 더욱 유지,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전술한 변인들(거부민감성, 해석편향, 기억편향, 우울증상) 간의 관계를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으로 설정하였다(Figure 1). 연구 모형 외 다른 두 개의 대안모형을 설정하여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정하고자 하였는데, 첫 번째 대안모형은 연구모형에서 부정적 해석편향이 우울증상에 이르게 되는 경로를 제거한 모형이다(Figure 2). 두 번째 대안모형은 부정적 해석편향에서 우울증상으로 향하는 경로와 거부민감성에서 우울증상으로 향하는 직접 경로를 제거한 완전매개모형이다(Figure 3). 본 연구에서의 구체적인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거부민감성은 우울증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며, 부정적 해석편향과 부정적 기억편향을 매개로 하여 우울증상에 영향을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석편향이 우울증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Figure 1).

가설 2. 거부민감성은 우울증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며, 부정적 해석편향과 부정적 기억편향을 매개로 하여 우울에 영향을 줄 것이다(Figure 2).

가설 3. 거부민감성은 부정적 해석편향과 부정적 기억편향을 매개로 하여 우울증상에 영향을 줄 것이다(Figure 3).

방 법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는 강원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원)생 159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질문지와 컴퓨터 과제를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에는 컴퓨터 시스템상의 문제로 저장이 완료되지 않은 두 개의 데이터를 제외한 157명의 데이터가 사용되었다. 대학교 인터넷 카페에 연구 참여자 모집문을 게시하여 연구에 관심이 있고, 참여를 원하는 학생이 책임 연구자에게 연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연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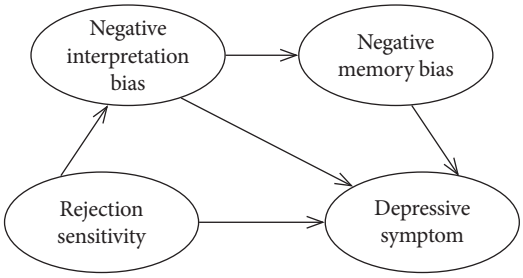

Figure 1. *Study model of this study: Partial dual mediation model of the relationship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depression through negative interpretation bias and negative memory bias including pathway from rejection sensitivity to depressive symptom through interpretation bi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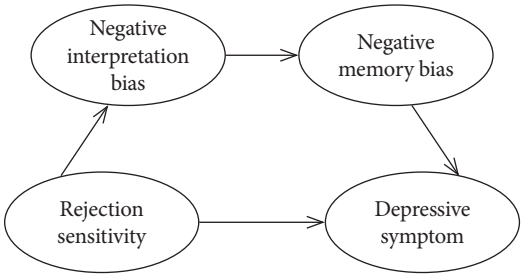

Figure 2. *Alternative model 1 of this study: Partial dual mediation model of the relationship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depression through negative interpretation bias and negative memory bi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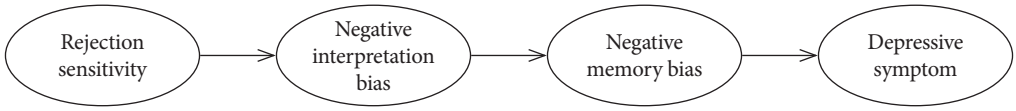

Figure 3. *Alternative model 2 of this study: Complete dual mediation model of the relationship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depression through negative interpretation bias and negative memory bias.*

이 오면 가능한 날짜와 시간대에 예약 후, 해당 날짜에 참가자가 강원대학교 사회과학대 심리학과 연구실에 방문하여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는 설문지 작성, 두 개의 컴퓨터 과제와 하나의 filler 과제로 이루어졌으며, 약 30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참가자의 평균나이는 23.58 (남자: 24.09, 여자: 23.11)세이며, 표준편차는 2.53이었다 ($t = 2.45$, $p < .05$). 성별은 남자가 77명(48.4%), 여자가 82명(51.6%)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서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chi^2 = .06$, $df = 1$, $p > .05$). 본 연구는 강원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승인번호: KWNUIRB-2016-08-005-005)을 받은 후 진행되었다.

측정 도구

한국판 역학연구센터 우울척도(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CES-D)

CES-D는 Radloff(1977)가 개발한 우울증상 평가도구로 Cho와 Kim(1993)이 한글로 번안,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일반인들이 경험하는 우울증상을 보다 간편하게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부정문항 17개, 긍정 문항 3개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문항은 역채점을 하여 합산하며, 총점이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주요 측정 내용은 우울한 기분, 죄의식,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껴지는 것, 무기력감, 절망감, 정신운동지체, 식욕감퇴, 수면장애 부분이다. 지난 일주일 동안 경험한 빈도에 따라 각 문항에 대해 극히 드물었다: 0점부터~ 대부분 그렇다: 3점까지, 4점 리커트 척도에 반응한다. 따라서 총점의 범위는 0점에서 60점이다.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위하여 우울 잠재변수를 구성하는 관측변수를 Chon, Choi와 Yang(2001)이 제시한 네 가지 요인을 사용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보고한 내적일치도(Cronbach α)는 .91이며, 본 연구에서는 .93으로 나타났다.

거부민감성 척도(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 RSQ)

Downey와 Feldman(1996)이 개발한 본 척도는 성인 초기에 겪을 수 있는 각종 상황들을 제시한다. 제시된 상황은 부모, 친구, 교수, 연인, 잠재적 연인 및 잠재적 친구 등에게 부탁 또는 요구를 하여야 하는 상황을 포함한다. 18가지의 상황(예, 같은 수업을 듣는 사람에게 강의 노트를 빌려 달라고 한다.)이 제시되고, 각 상황에 대해 자신의 요구나 부탁을 거부당할까봐 불안한 정도(거부불안)와 수용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정도(수용기대)를 묻는다. 따라서 거부불안 18문항과 수용기대 18문항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질문에 대해 리커트 6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 6점)로 응답하게 되어있다. 응답자가 제시된 상황에 처해본 경험이 없다면 만일 '그러한 상황에 처할 경우'를 상상하며 응답하도록 지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Lee(2000)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거부민감성 점수는 거부불안 점수와 역산된 수용기대 점수의 곱을 모두 더한 뒤, 18로 나누어 계산한다. 따라서 높은 RSQ점수는 높은 거부민감성을 의미한다. Lee(2000)의 연구에서 보고된 내적일치도는 .87이었다. 본 연구에서 전체문항에 대한 신뢰도는 .92, 두 하위척도인 거부불안과 수용기대에 대한 신뢰도는 각각 .91, .87으로 나타났다.

해석편향검사(Interpretation Bias - Similarity Rating Task, SRT)

해석편향을 측정하기 위해서 Yiend 등(2014) 및 Lee, Mathews, Shergill과 Yiend(2016)에서 사용한 해석편향 과제를 참고하여 연구에서 사용한 해석편향과제(Similarity Rating Task, SRT)를 Eprime 2.0을 사용하여 만들었다. SRT검사에서는 정서적으로 애매모호한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시한 후 그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해석을 제시하여 편향을 알아본다. 또한 각 반응은 키보드를 이용해 처리되었다. 본 과제에서 사용된 시나리오와 긍정 및 부정 문장은 한국 대학생이 겪을 수 있는 상황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시나리오와 각 문장은 흰색 바탕에 네이비색 글씨로 15인치 노트북 스크린의 가운데 제시되었으며, 폰트체는 Arial, 폰트크기는 13이다. 연습시행으로 다섯 개의 시나리오와 본 시행 10개의 시나리오로 구성되어 있다. 각 시나리오는 세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문장씩 제시된다.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스페이스 바(Space bar)를 누르거나, 문장 제시 후 2,000 ms 후 자동으로 다음 문장이 제시된다. 또한 응답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10,000 ms가 주어지고, 그 시간을 넘겼을 경우 정답이 자동 제시된다. 연습시행에는 문장제시가 포함되지 않고, 본 시행에서만 시나리오 제시 후 문장이 제시되어 유사도 평정을 실시하였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본 시행에서는 정서가가 애매모호한 시나리오를 읽으며 키보드를 사용하여 문장 끝부분에 제시되는 단어조각(단어의 자음 혹은 모음) 맞추기와 내용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y/n)을 한다. 10개의 시나리오와 질문제시가 끝나면, 시나리오 제목과 함께 네 문장 - (1) 시나리오와 연관 있는 긍정문장(Target Positive). (2) 시나리오와 연관 있는 부정문장(Target Negative), (3) 시나리오와 연관 없는 긍정문장(Foil Positive), (4) 시나리오와 연관 없는 부정문장(Foil Negative)-이 랜덤한 순서로 각각 하나씩 제시되는데, 참가자들은 제시된 문장을 읽고, 그 문장이 앞서 읽었던 중립적 시나리오의 내용과 제시된 문장이 얼마나 비슷한지 유사도를 4점 리커트 척도(1: '전혀 다르다'에서 4점 '매우 똑같다')로 평정한다 (Figure 4).

https://doi.org/10.15842/kjcp.2018.37.1.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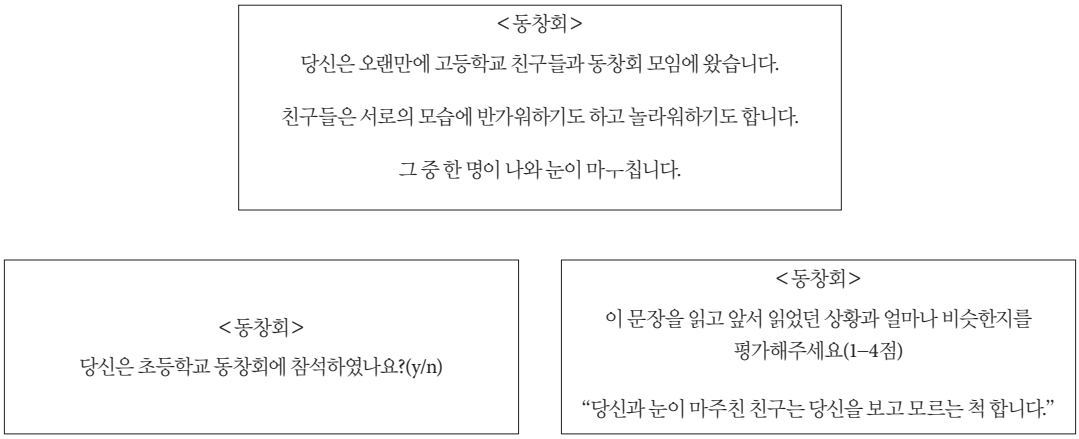

Figure 4. *Example of Similarity Rating Task (SRT).*

웩슬러 지능검사의 숫자 소검사 - 거꾸로 따라하기(Wechsler Adult Intelligence Scale - Reverse-Digit-Span)

기억편향을 측정하기 위한 연상과제(Recall Task)를 실시하기 전에 실시된다. 이는 해석편향 측정과제로부터 피험자의 주의를 전환하고, 해석과제와 기억과제를 분리하기 위한 목적이다. 약 3분간 실시하였다.

기억편향 - 자유연상과제(Memory Bias - Free Recall Task)

기억편향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를 Eprime 2.0을 사용해 만들었다. 실시방법은 앞선 SRT에서 제시된 시나리오의 제목이 15인치 노트북 스크린에 하나씩 제시되고, 응답자는 제목만을 읽은 후 제시되었던 시나리오의 내용을 회상(recall)하여 옆에 놓인 노트북에 타이핑하여 작성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한 시나리오를 회상하는데 시간제한은 없으며, 작성 후 피험자가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다음 제목이 제시된다. 시나리오 제목의 제시는 랜덤하게 이루어졌다. 본래 Joormannm, Waugh와 Gotlib(2015)의 연구에서는 참가자의 응답을 녹음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한컴오피스 한글 2010 프로그램에 직접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회상을 보고하는 데 시간제한 없이 진행되었다.

기억편향을 측정하기 위해서 Joormann 등(2015)의 연구에서 사용된 채점법을 따랐다. 기록된 기억을 평정하는 방법은 기억 중 침습이 있는지, 즉 새로운 내용이 보고되었는지(예/아니오), 만약 새로운 내용이 보고되었다면 각 기억의 정서가(긍정/부정/중립)는 무엇인지에 대해 평정한다. 본 시나리오와 SRT과제에서 제시된 문장들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단어나 용어를 사용하였고 그 정서가가 부정이라면 '침습-부정'으로 채점하였다. 한편 연구결과에서 시나리오 기억 보고 시, 긍정 혹은 부정 정서가를 지닌 SRT문장을 보고한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다. 따라서 시나리오 내용과 함께, SRT문장 내용을 보고한 경우의 정서가를 독립적으로 평정하였다. 즉 해석편향 측정 과제에서 사용된 네 문장 중 부정적 문장(Target Negative 또는 Foil Negative)을 기억하여 보고한 경우를 '내용-부정'으로 채점하였다. 평정자 간 신뢰도를 산출하기 위해 전체 문항의 30%에 대해 두 평가자가 독립적으로 평정을 하였다. 기억 보고에서 내용 및 침습 유무에 대한 평정자 간 신뢰도는 각각 $\kappa = .93$, .85, 내용 정서가에 대해서는 .80이었으며, 침습 정서가에 대해서는 .71이었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거부민감성과 우울의 관계에서 부정적 해석편향과 부정적 기억편향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SPSS23.0과 AMOS23.0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거부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질문지는 두 가지 하위척도, 즉 거부불안과 수용기대로 구성되어 있다. 구조방정식 특성상 잠재 변수가 관찰변수의 평균으로 계산됨에 따라 양극단의 정서가를 관찰변수로 사용할 경우, 수치가 타당하지 않음이 시사되기 때문에, 두 하위척도의 방향성을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 수용기대에 대한 하위척도를 역산하여 사용하였다. 부정적 해석편향은 본래 단일항목이나, 모든 문항을 잠재변수의 관측변수로 구인할 경우 추정모수의 수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다변량 정규분포 가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바(Woo, 2012), 탐색적 요인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두 개의 관측변수로 묶었다. 또한 부정적 기억편향에 대한 관측변수는 침습-부정과 내용-부정으로 구성하였으며, 우울증 척도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 기반 하여 네 개의 요인으로 나누어 관측변수를 구성하였다.

또한 설정한 모형들의 적합도 평가를 위하여 다양한 모델적합도

지수를 살펴보았다. χ^2수치는 가장 흔히 사용되던 적합지수였으나 이는 표본크기 및 모델의 복잡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학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영모델(null model)과 비교하여 해당 모델에 의해 얼마나 잘 측정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증분적합지수 중 하나인 Comparative Fit Index (CFI), Turker-Lewis Index (TLI)와 절대적합지수인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MSEA)과 Goodness of Fit Index (GFI)를 고려하였다. RMSEA를 제외한 나머지 세 지수는 0-1 사이의 값을 가지며, 보통 .90 이상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준수하다고 판단한다. RMSEA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10 이상이면 좋지 않은 모형, .10 이하이면 보통의 모형, .08 이하이면 양호한 모형, .05 이하이면 좋은 모형이라 해석할 수 있다(Hong, 2000). 경로의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해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분석 및 기술통계

우울은 거부민감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r = .55), 거부민감성의 하위항목과는 거부불안(r = .47), 수용기대(r = -.39) 순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우울은 부정적 해석편향과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r = .50), 우울은 부정적 기억편향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는데(r = .65), 기억편향의 하위항목인 내용(r = .56)과 침습(r = .56) 모두에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거부민감성은 부정적 해석편향과 유의한 정적 상관계수를 나타냈고(r = .49), 부정적 기억편향과도 .50의 수치를 보였다. 부정적 해석편향과 부정적 기억편향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 = .52).

다음으로 주요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정규성 검토를 위하여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였다. 일반적으로 왜도는 절대값 3 미만, 첨도는 절대값 7 미만이면 정규성 가정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데(Finch & West, 1997), 모든 변인들이 이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규성 가정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Table 1).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 및 적합도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각 잠재변인을 구성하는 관측변인이 타당하게 구성되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거부민감성은 거부불안과 수용기대를 역산한 점수로 구성하였고, 부정적 해석편향은 단일 요인이기 때문에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두 개의 관측변수로 구성하였다. 또한 부정적 기억편향 잠재변수는 침습-부정과 내용-부정 두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우울 잠재변인은 Chon 등(2001)이 제안한 4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하였다. 증분적합지수인 TLI는 기준치인 .9보다 높은 값을 보였으며, CFI도 기준치인 .9보

Tabl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Fit Indices*

χ^2	*df*	CFI	TLI	GFI	RMSEA (90% Confidence intervals)
54.70**	29	.965	.945	.933	.075

**p < .01.

Table 1. *Means, Standard Deviations, Skewness, Kurtosis and Pearson Correlations of Depression, Rejection Sensitivity, Negative Interpretation Bias, and Negative Memory Bias*

Variables	1	2	2-1	2-2	3	4	4-1	4-2
1. Depression	1							
2. Rejection Sensitivity	.55***	1						
2-1 Anxious Expectation	.47***	.91***	1					
2-2 Acceptance Expectation	-.39***	-.84***	-.62***	1				
3. Negative Interpretation Bias	.50***	.49***	.43***	-.36***	1			
4. Negative Memory Bias	.65***	.50***	.35***	-.44***	.52***	1		
4-1 Content	.56***	.35***	.26**	-.30***	.43***	.78***	1	
4-2 Intrusion	.56***	.49***	.33***	-.42***	.46***	.92***	.49***	1
N	159	159	159	159	157	159	159	159
M	12.36	8.43	47.08	76.38	19.45	1.30	0.38	0.92
SD	11.12	4.58	16.71	13.28	5.98	1.76	0.77	1.25
Skewness	1.27	0.95	0.47	-0.36	0.97	1.46	1.94	1.58
Kurtosis	1.35	0.69	-0.40	0.05	0.78	1.65	2.69	2.46

Note. 1 =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CES-D); 2 = 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 (RSQ); 3 = Interpretation Bias-Similarity Rating Task (SRT); 4 = Memory Bias-Free Recall Task.
**p < .01. ***p < .001.

https://doi.org/10.15842/kjcp.2018.37.1.006

다 높은 값을 보였다. 절대적합지수인 GFI 또한 기준치인 .9보다 높은 값을 보였고, RMSEA (90%의 신뢰구간)는 기준치인 .10보다 낮은 값을 나타냈다(Table 2). 전반적으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기 때문에 확인적 요인분석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각 관측변인이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반영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관측변인들의 요인 부하량(β)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잠재변인을 구성하는 모든 관측변인의 요인 부하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요인 부하량 역시 .5 이상으로 나타나 관측변인들이 해당 잠재변인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의 비교

연구모형과 설정된 두 개의 대안모형 중 설명력이 더욱 우수하고 간명한 모형을 선정하기 위해 연구모형과 대안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 비교와 Bentler와 Bonett(1980)의 χ^2차이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CFI, TLI, GFI, RMSEA 수치를 비교한 결과, 연구모형, 대안모형1, 대안모형2는 비슷한 적합도 지수를 보였다. 따라서 Bentler

Table 3. *Model Fit of Study Model and Alternative Models*

Models	χ^2	*df*	CFI	TLI	GFI	RMSEA (90% Confidence intervals)
Study Model	55.76**	30	.965	.947	.932	.074
Alternative Model 1	56.24**	31	.965	.950	.932	.072
Alternative Model 2	59.35**	32	.962	.947	.929	.074

**$p < .01$.

Table 4. *Direct Effect of the Final Model*

Path			*B*	*SE*	β	*C.R.*	*p*
Rejection Sensitivity	→	Negative Interpretation Bias	.03	.01	.70	5.87***	< .001
Negative Interpretation Bias	→	Negative Memory Bias	1.55	.27	.84	5.77***	< .001
Negative Memory Bias	→	Depression	1.70	.25	.85	6.89***	< .001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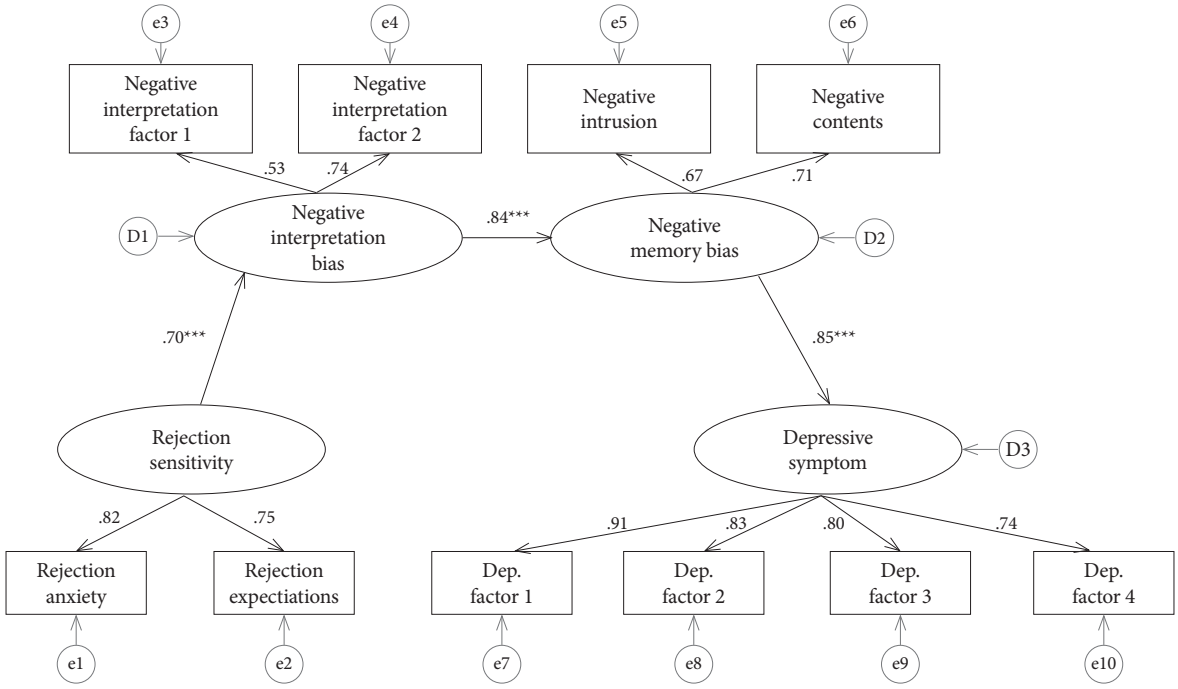

Figure 5.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s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rejection sesitivity and depression as mediated by negative interpretation bias and negative memory bias.*

와 Bonett(1980)의 χ^2차이검증을 통해서 모형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첫 번째로, 연구모형과 대안모형1을 비교하였는데($\Delta\chi^2 = 0.48 < \chi^2_{.05} = 3.84$, $\Delta df = 1$, $p > .05$), 두 모형 간 χ^2의 차이가 3.84보다 작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유의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즉, 두 모형 간 합치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자유도가 더 큰 모형인 대안모형1을 선택하였다. 다음으로, 대안모형1과 대안모형2를 비교하였는데 두 모형 간 χ^2차이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Delta\chi^2 = 3.11 < \chi^2_{.05} = 3.84$, $\Delta df = 1$, $p > .05$), 추정해야 하는 경로 계수의 숫자가 더 적은 모형 즉, 자유도가 더 큰 모형인 완전매개모형(대안모형2)을 최종모형으로 채택하였다(Table 3).

최종모형의 직접효과 검증

모형의 각 경로계수들의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 거부민감성에서 부정적 해석편향으로 가는 직접 경로는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beta = .70$, $p < .001$), 부정적 해석편향에서 부정적 기억편향으로 가는 직접 경로도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beta = .84$, $p < .001$), 부정적 기억편향에서 우울로 가는 직접 경로($\beta = .85$, $p < .001$)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Figure 5).

최종모형의 간접효과 검증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좀 더 세밀히 파악하고,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간접효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부트스트랩(Bootstrap)을 통해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의 크기를 산출하고, 그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최종모델로 선택된 대안모형2에 대해 5,000번의 부트스트랩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거부민감성은 부정적 기억편향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며($\beta = .59$, $p < .01$), 부정적 해석편향 역시 우울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71$, $p < .01$). 본 연구에서 관심 있는 순차적 이중매개 결과를 살펴보면, 거부민감성이 우울에 간접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50$, $p < .01$). 즉, 거부민감성은 부정적 해석편향과 부정적 기억편향을 거쳐서 간접적으로 우울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Table 5).

논 의

본 연구의 목표는 거부민감성과 해석편향, 기억편향 및 우울증상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특히 거부민감성과 우울증상 간의 관계에서 인지편향의 두 요소인 부정적 해석편향과 부정적 기억편향의 순차적인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함이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거부민감성, 부정적 해석편향, 부정적 기억편향, 우울증상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주요변인들 모두 .30 이상의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특히, 우울증상과 거부민감성 사이에 .55 이상의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는데, 이는 거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거부를 경험하게 되면 차후 외로움, 사회불안 및 우울에 취약성을 보인다는 다수의 선행연구 결과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Ayduk et al., 2001; Kwak, 2016; Tops, Riese, Oldehinkel, Rijsdijk, & Ormel, 2008). 부정적 해석편향과 부정적 기억편향 사이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는데, 이는 하나의 인지편향이 다른 인지편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에 상응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Everaert et al., 2012; Hertel, Brozovich, Joormann, & Gotlib, 2008; Tran et al., 2011). 즉 본 연구의 해석편향 과제에서 참가자들이 중립적인 시나리오를 읽은 후, 해석 단계에서 긍정적 해석보다는 부정적 해석이 앞서 읽은 중립적 시나리오와 더 유사하다고 평정하였을수록 기억편향 평가과제에서도 부정적 기억을 더 많이 보고하였음을 의미한다. 또한 거부민감성과 부정적 해석편향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으며, 이는 거부당할 것이라는 불안한 기대가 높을수록 중립적 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Normansell과 Wisco(201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둘째, 가설 1은 연구모형으로 거부민감성과 우울증상 간 관계에서 부정적 해석편향과 부정적 기억편향의 이중매개 경로, 부정적 해석편향에서 우울증상에 이르는 경로, 거부민감성에서 우울증상으로의 직접경로를 포함하는 모형이다. 검증 결과 연구모형이 대안모형 2보다 낮은 모형적합도를 보였으며, 거부민감성에서 우울증상

Table 5. *Direct and Indirect Effect of the Final Model*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Rejection Sensitivity	Negative Interpretation Bias	.70***	-	.70
Negative Interpretation Bias	Negative Memory Bias	.84***	-	.84
Negative Memory Bias	Depression	.85***	-	.85
Rejection Sensitivity → Negative Interpretation Bias → Negative Memory Bias → Depression		-	.50**	.50

Note. Bootstrapping = Bias-corrected percentile method.
**$p < .01$, ***$p < .001$.

https://doi.org/10.15842/kjcp.2018.37.1.006

으로의 직접경로와 거부민감성이 부정적 해석편향을 거쳐 우울증상으로 향하는 간접 경로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ps>.05$). 따라서 가설 1이 지지되지 않았다. 이는 거부민감성이 부정적 해석편향을 거쳐 불쾌감증(dysphoria)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Normansell과 Wisco(2016)의 선행연구의 결과와 다르게 나타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거부민감성에서 부정적 해석편향을 거쳐 우울증상으로 향하는 경로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은 결과는 Normansell과 Wisco(2016)의 연구와 달리 본 연구 모델에서는 부정적 해석편향뿐만 아니라 부정적 기억편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 추측된다. 이러한 추측을 좀 더 명확히 하고자 추가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추가적 분석에서는 부정적 기억편향을 제외하고, 부정적 해석편향만을 매개변인으로 지정하여 단순매개 효과를 살펴보았는데, 거부민감성에서 우울증상으로 향하는 경로($\beta=.32, p<.05$), 거부민감성에서 해석편향으로 향하는 경로($\beta=.58, p<.001$), 해석편향에서 우울증상으로 향하는 경로($\beta=.44, p<.01$)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정적 기억편향 변인을 추가한 경우, 거부민감성에서 부정적 해석편향을 거쳐 우울증상으로 향하는 경로와 거부민감성에서 우울증상으로의 직접경로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거부민감성과 우울증상 간의 관계에서 부정적 해석편향만을 포함시키는 모형보다 기억편향을 추가하는 모형이 더 설명력이 높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또한 가설 2 모형은 거부민감성과 우울증상 간 부정적 해석편향과 부정적 기억편향의 이중매개 경로와 거부민감성에서 우울증상으로의 직접경로를 포함하는 모형이다. 검증 결과 가설 2 모형이 다른 모형보다 더 적합하지 않았으며, 거부민감성에서 우울증상으로의 직접경로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beta=.19, p>.05$), 가설 2가 지지되지 않았다. 이는 거부민감성이 우울증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보다는 부정적 해석과 부정적 기억을 통해 우울증상으로 이어짐을 의미한다. 즉, 거부민감성과 우울증상을 설명하는데 부정적 해석편향과 부정적 기억편향이 주요 매개변인임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셋째, 거부민감성과 우울증상 간 관계에서 부정적 해석편향과 부정적 기억편향의 이중매개 경로를 포함하는 완전이중매개모형이 최종모형으로 선정되어 가설 3이 지지되었다. 최종모형에 대한 직접효과 분석 결과, 거부민감성에서 부정적 해석편향, 부정적 해석편향에서 부정적 기억편향, 부정적 기억편향에서 우울증상으로 가는 경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부민감성과 우울증상 간의 관계를 해석편향과 기억편향이 순차 매개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간접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최종모형의 간접효과 검증 결과 거부민감성이 해석편향과 기억편향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우울증상에 이르는 완전이중매개가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최종 모델을 통해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중립적인 사회적 상황에서도 부정적 해석을 할 경향성이 높으며, 이는 이후 부정적 내용을 더욱 많이 기억하는 기억편향으로 이어져 최종적으로 우울증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시사되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Disner 등(2011)이 제안한 우울증의 인지모델에서 해석편향과 기억편향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여 우울증을 초래한다는 가설 중 해석편향이 기억편향에 영향을 주어 우울증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경로분석을 통해 살펴본 데 의의가 있다. Beck(2008)은 환경에 의해 촉발된 우울한 자기-참조적 스키마가 내적·외적 자극에 대해 주의, 해석, 기억편향을 유발하며, 그 결과로 유입되는 정보가 여과된다고 설명하였다. 즉, 정보의 전체가 아닌 자신의 스키마-일치 요소만을 선별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과 우울에 취약한 스키마가 내재되어 있는 경우 우울 스키마와 일치하는 방식의 정보처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 이러한 편향된 정보처리가 우울증상의 발현에 기여하게 되고, 이는 다시 우울요소와 관련된 개인의 신념을 더욱 강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Beck, 2008; Disner et al., 2011; Everart et al., 2012). 상황에 대한 해석편향과 기억편향이 서로 관여하여 우울증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설을 본 연구에 대입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해석편향 측정을 위하여 참가자들은 시나리오를 읽은 후, 제시되는 문장-즉 상황에 대한 해석-이 중립적인 상황과 얼마나 유사한지 평정을 하였다. 모든 연구 참가자는 긍정적 해석과 부정적 해석에 각각 두 번씩 노출되었다. 하지만 높은 거부민감성을 가진 사람들은 기억과제에서 부정적 기억을 더욱 많이 보고하였는데, 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스키마와 일치하는 내용에 더욱 주의를 기울였거나(내용-부정), 부정적 스키마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정교화(침습-부정)하였기 때문에 부정적 기억에 대한 보고를 더욱 많이 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를 통해 부정적 기억편향이 해석편향과 함께 거부민감성과 우울증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매개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우울증의 인지편향 연구들을 살펴보면 기억편향에 비해 해석편향에 좀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추후 기억편향이 어떻게 우울증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좀 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 결과는 대인관계 문제로 우울감을 겪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상담함에 있어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지닌다. 먼저,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거부민감성이 높고, 애매모호한 상황에 대한 부정적 해석이 긍정적 해석보다 현실과 더욱 유사하다고 평정하며, 기억보고에서 부정적 회상을 더욱 많이 보인 사람은 우울에 취

약성이 있다는 해석을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이 우울감을 주요 호소 문제로 상담을 받고자 할 경우, 그 우울감의 촉발 요인이 대인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면 이러한 대인관계적 문제가 거부민감성으로부터 기인된 것은 아닌지, 또한 그들이 모호한 사회적 단서에 대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기억하는 경향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고, 이들의 대인관계에서 거부민감성을 낮추고 인지편향을 수정하는 데 초점을 두는 개입이 도움이 될 것이다.

해석은 상황을 맞닥뜨린 순간 행해질 수 있으며, 기억은 해석 혹은 그 상황 자체를 회고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기억은 해석보다 더 정교화된 과정을 반영하는 후기 정보처리 단계에 해당된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Jang & Do, 2014). 우울한 사람들은 객관적인 상황으로부터 입력할 수 있는 정보들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키마와 일치하는 방향-즉 우울한 인지(depressive cognition)와 유사하게 처리하고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Gotlib & Joormann, 2010). 이렇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정교화되어 쌓여온 정보들은 현재 일어나는 사건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기억하여 정보처리하는 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거부민감성이 높은 개인이라면 유아기 때부터 거부적 메시지를 체득하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Bowlby, 1969 as cited in Downey & Feldman, 1996), 현재 경험하는 사건들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기억하는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이 모호한 상황에서 의미를 부정적으로 부여(해석)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기억으로 저장한다면 우울한 기분의 지속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Josephson, Singer, & Salovey, 1996) 우울증을 치료함에 있어서 기억 정보처리 방식에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령 우울감을 호소하는 대학생을 상담할 때, 사건을 바라보는 해석 방식뿐 아니라 부정적으로 편향되어 있는 기억을 교정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새로운 기억을 가지도록 돕는다면 우울감을 감소시키는 데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미리 거부를 지각하고 거부당할까봐 불안해하는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기억 공고화 훈련에서의 '속단하였는가(jumping to conclusion)' 여부를 판단하여 자신의 해석과 기억을 점검해볼 수 있는 기회가 우울감 완화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Watkins, Baeyens, & Read, 2009). 또한 앞서 살펴보았듯이 인지편향은 단독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상호의존적으로 작용한다(Disner et al., 2011). 추후연구에서 모호한 중립적 상황에 대한 긍정적 해석을 지속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해석편향수정 훈련과 기억훈련을 병행할 때 해석 및 기억편향으로 인한 우울감 완화에 더 도움이 될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Joormann et al., 2015).

본 연구의 제한점 및 미래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에 사용된 자료의 수는 157개이다. 여러 학자들이 제안하는 최소 수치인 150은 만족하나,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임계치인 200–400(Hoyle, 1995; Schumacker & Lomax, 2004)은 만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고, 표본크기를 늘려서 적합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긍정적 해석편향, 긍정적 기억편향을 하나의 모형에 포함하여 변인 간의 관계를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Disner 등(2011)과 Hirsch 등(2006)은 해석, 주의 및 기억편향 각각이 개별적으로 정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각 편향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또는 두 개 이상의 인지편향이 같이 작용하여 정서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음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Disner 등(2011)이 제시한 우울의 인지 모델을 검증하기 위한 예비연구로, 거부민감성이 해석편향에서 기억편향을 거쳐 우울증상에 영향을 주는 경로를 설정하고 이들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후속연구에서는 해석편향이 기억편향에 주는 영향뿐만 아니라 기억편향이 해석편향에 주는 영향을 알아 볼 수 있는 연구 디자인을 통해 편향 간의 상호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모델에서 기억편향이 추가되었을 경우 해석편향의 설명력이 없어졌는데, 이는 과제 실시 순서효과에 의한 결과일 수도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기억편향 측정 후 해석편향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여, 해석편향이 기억편향에 영향을 주는 경우와 기억편향이 해석편향에 영향을 주는 경우를 분리하여 각각의 설명력을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결과는 횡단적 자료에 근거하였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확증하기에는 부족하였다. 특히 거부민감성은 애착이론으로부터 나타난 개념이며, 유아기 때 양육자로부터 거부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면 이후 대인관계에서도 자신이 거부당할 것 이라고 예상한다는 것이다(Bowlby, 1980 as cited in Downey & Feldman, 1996). 하지만 그 반대로 우울증상이 거부민감성을 상승시키고, 상승된 거부민감성이 다시 우울증상을 심화시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 우울증상을 선행변인으로 하여 모델을 분석한 결과 우울증상에서 거부민감성으로 이어지는 경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 = .06$, $p > .05$).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분석된 결과가 횡단자료에 기반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울증상과 거부민감성 간의 관계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후속연구에서 종단적 또는 실험적 연구를 실시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인지통제 능력의 저하가 인지적 요인(해석편향, 기억편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Joormann & Siemer, 2011), 후속연구에

https://doi.org/10.15842/kjcp.2018.37.1.006

서는 제3의 변인을 고려하여 변인 간의 관계를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대학 혹은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것으로 연구결과를 다양한 집단에 일반화하기 어렵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와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울장애로 진단받은 개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해 보는 것도 임상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References

Ayduk, O., Downey, G., & Kim, M. (2001). Rejection sensitivity and depressive symptoms in wome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 868-877.

Baumeister, R. F., & Leary, M. R. (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 497-529.

Beck, A. T. (2008). The evolution of the cognitive model of depression and its neurobiological correlate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5*, 969-977.

Bentler, P. M., & Bonett, D. G. (1980). Significance tests and goodness of fit in the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s. *Psychological Bulletin, 88*, 588-606.

Bergevin, T. A. (2003). *Approaching rejection sensitivity from a multidimensional perspective: predicting romantic maladjustment, targets of romantic attraction and depression in middle adolesc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oncordia University, Quebec, Canada.

Berna, C., Lang, T. J., Goodwin, G. M., & Holmes, E. A. (2011). Developing a measure of interpretation bias for depressed mood: An ambiguous scenarios test.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1*, 349-354.

Chango, J. M., McElhaney, K. B., Allen, J. P., Schad, M. M., & Marston, E. (2012). Relational stressors and depressive symptoms in late adolescence: Rejection sensitivity as a vulnerabilit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0*, 369-379.

Cho, M. J., & Kim, K. H. (1993). Diagnostic validity of the CES-D (Korean version) in the assessment of DSM-III-R major depression.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32*, 381-399.

Chon, K. K., Choi, S. C., & Yang, B. C. (2001). Integrated adaptation of CES-D in Korea.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6*, 59-76.

Disner, S. G., Beevers, C. G., Haigh, E. A., & Beck, A. T. (2011). Neural mechanisms of the cognitive model of depression. *Nature Reviews Neuroscience, 12*, 467-477.

Downey, G., & Feldman, S. I. (1996). Implications of rejection sensitivity for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1327-1343.

Ellsworth, P. C., & Scherer, K. R. (2003). Appraisal processes in emotion. In R.J. Davidson, K. R. Scherer, & H. Goldsmith (Eds), *Handbook of affective sciences* (pp. 572-595).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Everaert, J., Koster, E. H., & Derakshan, N. (2012). The combined cognitive bias hypothesis in depression. *Clinical Psychology Review, 32*, 413-424.

Everaert, J., Tierens, M., Uzieblo, K., & Koster, E. H. (2013). The indirect effect of attention bias on memory via interpretation bias: Evidence for the combined cognitive bias hypothesis in subclinical depression. *Cognition and Emotion, 27*, 1450-1459.

Finch, J. F., & West, S. G. (1997). The investigation of personality structure: Statistical model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1*, 439-485.

Gotlib, I. H., & Joormann, J. (2010). Cognition and depression: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6,* 285-312.

Harper, M. S., Dickson, J. W., & Welsh, D. P. (2006). Self-silencing and rejection sensitivity in adolescent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5*, 435-443.

Hertel, P. T., & Brozovich, F. (2010). Cognitive habits and memory distortions in anxiety and depression.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9*, 155-160.

Hertel, P. T., Brozovich, F., Joormann, J., & Gotlib, I. H. (2008). Biases in interpretation and memory in generalized social phobia.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7*, 278-288.

Hertel, P., Mor, N., Ferrari, C., Hunt, O., & Agrawal, N. (2014). Looking on the dark side rumination and cognitive-bias modification. *Clinical Psychological Science, 2,* 714-726.

Hindash, A. H. C., & Amir, N. (2012). Negative interpretation bias in individuals with depressive symptom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6*, 502-511.

Hirsch, C. R., Clark, D. M., & Mathews, A. (2006). Imagery and interpretations in social phobia: Support for the combined cognitive biases hypothesis. *Behavior Therapy, 37*, 223-236.

Hong, S. (2000). The criteria for selecting appropriate fit indice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their rationale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 161-177.

Hoyle, R. H.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Thousand Oaks, CA: Sage.

Jang, S. Y., Do, K. S. (2014). *The Effect of induced Anxiety and Depression on Attention and Information Integr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Johnson, S. L., Joormann, J., & Gotlib, I. H. (2007). Does processing of emotional stimuli predict symptomatic improvement and diagnostic recovery from major depression? *Emotion, 7*, 201-206.

Joiner, T., Coyne, J. C., & Blalock, J. (1999). On the interpersonal

nature of depression: Overview and synthesis. In T. Joiner & J. Coynne (Eds.), *The interactional nature of depression: Advances in interpersonal approaches* (pp. 3-20).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Joormann, J., & Quinn, M. E. (2014). Cognitive processes and emotion regulation in depression. *Depression and Anxiety, 31*, 308-315.

Joormann, J., Siemer, M., & Gotlib, I. H. (2007). Mood regulation in depression: Differential effects of distraction and recall of happy memories on sad mood.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6*, 484-490.

Joormann, J., & Siemer, M. (2011). Affective processing and emotion regulation in dysphoria and depression: Cognitive biases and deficits in cognitive control.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Compass, 5*, 13-28.

Joormann, J., Waugh, C. E., & Gotlib, I. H. (2015). Cognitive bias modification for interpretation in major depression effects on memory and stress reactivity. *Clinical Psychological Science, 3*, 126-139.

Josephson, B. R., Singer, J. A., & Salovey, P. (1996). Mood regulation and memory: Repairing sad moods with happy memories. *Cognition and Emotion, 10,* 437-444.

Kraines, M. A., & Wells, T. T. (2017). Rejection Sensitivity and Depression: Indirect Effects Through Problem Solving. *Psychiatry, 80*, 55-63.

Kwak, N. E. (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Maladaptive Self-Focused Attention and Adolescents' Depression: Mediating Effect of Emotional Regulation and Rejection Sensitiv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cheon National University, Incheon, Korea.

Lawson, C., MacLeod, C., & Hammond, G. (2002). Interpretation revealed in the blink of an eye: Depressive bias in the resolution of ambiguit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1*, 321-328.

Lee, B. D. (2000). *The relationship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satisfaction of dating relationship-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rejection sensitivity and attribution styl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Lee, H. K., Kim, K. H., & Lee, H. K. (2014) Influence of rejection sensitivity on the aggression: The mediated moderating effect.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6*, 97-121.

Lee, J. S., Mathews, A., Shergill, S., & Yiend, J. (2016). Magnitude of negative interpretation bias depends on severity of depression.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83*, 26-34.

Leung, K. K., Lee, T. M., Yip, P., Li, L. S., & Wong, M. M. (2009). Selective attention biases of people with depression: Positive and negative priming of depression-related information. *Psychiatry Research, 165*, 241-251.

Levy, S. R., Ayduk, O., & Downey, G. (2001). The role of rejection sensitivity in people's relationships with significant others and valued social groups. In M. R. Leary (Ed.), *Interpersonal rejection* (pp. 251-289). NewYork: Oxford University Press.

Liu, R. T., Kraines, M. A., Massing-Schaffer, M., & Alloy, L. B. (2014). Rejection sensitivity and depression: Mediation by stress generation. *Psychiatry: Interpersonal and Biological Processes, 77*, 86-97.

Luterek, J. A., Harb, G. C., Heimberg, R. G., & Marx, B. P. (2004). Interpersonal rejection sensitivity in childhood sexual abuse survivors mediator of depressive symptoms and anger suppressio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9*, 90-107.

MacLeod, C., Mathews, A., & Tata, P. (1986). Attentional bias in emotional disorder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5*, 15-20.

Matt, G. E., Vázquez, C., & Campbell, W. K. (1992). Mood-congruent recall of affectively toned stimuli: A meta-analytic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12*, 227-255.

Mellin, E. A. (2008). Rejection sensitivity and college student depression: Findings and implications for counseling. *Journal of College Counseling, 11*, 32-41.

Normansell, K. M., & Wisco, B. E. (2016). Negative interpretation bias as a mechanism of the relationship between rejection sensitivity and depressive symptoms. *Cognition and Emotion, 31*, 950-962.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Romero, N., Sanchez, A., & Vazquez, C. (2014). Memory biases in remitted depression: The role of negative cognitions at explicit and automatic processing levels. *Journal of Behavior Therapy and Experimental Psychiatry, 45*, 128-135.

Rude, S. S., Valdez, C. R., Odom, S., & Ebrahimi, A. (2003). Negative cognitive biases predict subsequent depress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7*, 415-429.

Rude, S. S., Wenzlaff, R. M., Gibbs, B., Vane, J., & Whitney, T. (2002). Negative processing biases predict subsequent depressive symptoms. *Cognition and Emotion, 16*, 423-440.

Sander, A. J. B. (2001). *Toward an integration of Beck's cognitive theory and Bowlby's attachment theory: self-schema and adult attachment classification in relation to depressive symptom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xas, Austin, U.S.A.

Schumacker, R. E., & Lomax, R. G. (2004). *A beginner's guide to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nd ed.). London: Routledge.

Siemer, M., Mauss, I., & Gross, J. J. (2007). Same situation--different emotions: How appraisals shape our emotions. *Emotion, 7*, 592-600.

Tops, M., Riese, H., Oldehinkel, A. J., Rijsdijk, F. V., & Ormel, J. (2008). Rejection sensitivity relates to hypocortisolism and depressed mood state in young women. *Psychoneuroendocrinology, 33*, 551-559.

Tran, T. B., Hertel, P. T., & Joormann, J. (2011). Cognitive bias modification: Induced interpretive biases affect memory. *Emotion, 11*, 145-152.

https://doi.org/10.15842/kjcp.2018.37.1.006

Watkins, E. R., Baeyens, C. B., & Read, R. (2009). Concreteness training reduces dysphoria: Proof-of-principle for repeated cognitive bias modification in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8*, 55-64.

Watkins, P. C., Vache, K., Verney, S. P., & Mathews, A. (1996). Unconscious mood-congruent memory bias in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5*, 34-41.

Wechsler, D. (2014). *Wechsler Adult Intelligence Scale–Fourth Edition (WAIS-IV)*. San Antonio, Texas: Psychological Corporation.

Williams, J. M. G., Barnhofer, T., Crane, C., Herman, D., Raes, F., Watkins, E., & Dalgleish, T. (2007). Autobiographical memory specificity and emotional disorder. *Psychological Bulletin, 133*, 122-148.

Woo, J. P. (2012). *The concept and understanding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Seoul: Hannarae Academy.

Yiend, J., Lee, J. S., Tekes, S., Atkins, L., Mathews, A., Vrinten, M., ... & Shergill, S. (2014). Modifying interpretation in a clinically depressed sample using 'cognitive bias modification-errors': A double blind randomised controlled trial.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38*, 146-159.

국문초록

거부민감성이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해석편향과 부정적 기억편향의 이중매개효과검증

박정현 · 이종선

강원대학교 심리학과

거부민감성과 부정적 인지편향은 우울증의 위험인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거부민감성이란 거부에 대해 지각하고 반응하는 것에 대한 개인차를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써,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대인관계 상황에서 거부당할 것이라는 불안한 기대를 가지고, 거부를 즉시 지각하며, 거부에 대해 과민한 반응을 하게 된다. 인지편향이란 주어진 정보나 상황에 대해 해석하고 기억하는 정보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패턴을 일컬으며, 우울한 사람들은 부정적 인지편향을 나타낸다. 본 연구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거부민감성이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의 관계를 매개하는 심리적 기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함이다. 159명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국판 역학연구센터 우울척도와 거부민감성 척도 설문지를 실시하고, e-prime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해석편향측정과제(Similarity Rating Task)와 기억편향과제를 실시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정한 연구모형과 두 개의 대안모형을 비교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완전이중매개인 대안모형2가 최종모형으로 선정되었으며 자료를 설명함에 있어 가장 적합하였다. 이는 높은 거부민감성이 부정적 해석편향과 부정적 기억편향을 통해 우울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며, 거부민감성과 우울 간의 관계를 설명함에 있어 Hirsch와 연구자 등이 제안한 결합된 인지편향가설(combined cognitive bias hypothesis)을 지지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른 치료적 함의와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우울증, 거부민감성, 인지편향, 해석편향, 기억편향